

# 『아비달마구사론』 「과집아품」에서 인용된 경전분석에 의한 독자부 뿌드갈라론자에 대한 이해

이치원  
(금강대 박사과정)

## 국문초록

뿌드갈라론을 주장하는 학파들은 7세기경에 일곱 부파가 언급될 정도로 많았지만 현존하는 뿌드갈라론자(Pudgalavādin) 자신들의 독자적 논서 자료들은 빈약하다. 따라서 뿌드갈라론자들에 대한 파악은 대부분 비판자들의 논서들에 의지해 알려지고 있는 까닭에 뿌드갈라론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주로 타 학파들의 논서 중심의 선행연구와 달리 이 논문에서는 불교내 학파간의 경전해석 태도의 상이함에 주목하여 『아비달마구사론』 「과집아품」에서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과 외수반두(Vasubandhu)에 의해 인용된 경전들의 분석에 근거하여 독자부(Vātsīputrīya) 뿌드갈라론자에 대해 좀 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과집아품」의 14개 논쟁 주제내의 34곳에서 분석된 경전은 90여 개이다.

현존하는 4 아함과 4 니까야(Nikāya)와의 불일치, 그리고 동일 또는 유사내용의 경전들이 서로 다른 아함이나 니까야에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과집아품」에서 인용된 경전들의 경전군 분포분석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잘 확인된다. 외수반두가 24곳에서 인용한 경전 중 5곳의 경전은 한역본만 존재하며 3곳의 경전은 니까야와 한역본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16곳의 경전만이 니까야와 한역본에 모두 존재한다. 반면에 뿌드갈라론자들이 10곳에서 인용한 모든 경전은 니까야와 한역본에 모두 존재한다.

『아비달마구사론』 「과집아품」에서 외수반두의 24곳의 인용경전 중 20곳의 경전은 잡아함경 혹은 상윳따 니까야에 공통적으로 속하며, 뿌드갈라론자들의 10곳의 인용경전은 모두 증일아함경 혹은 앙굿따라 니까야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경전군 분포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분포특징에 근거하면 『아비달마구사론』 「과집아품」 ‘무이논쟁’에서 외수반두는 주로 잡아함경 혹은 상윳따 니까야의 경전군의 경전을, 반면에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은 모두 증일아함경 혹은 앙굿따라 니까야 경전군의 경전을 각각 자신들 주장의 근거 경전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뿌드갈라론자들의 논서와 함께 『아비달마구사론』 「과집아품」의 ‘무이논쟁’에서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이 요의경이라 주장하는 그들의 인용경전들의 경전군 분포특성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경전 용어에서 채용한 뿌드갈라와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 『아비달마구사론』 「과집아품」, 경전분석, 뿌드갈라, 독자부 뿌드갈라론자, 무이논쟁

## I. 서론

『아비달마구사론』 「과집아품」의 도입부에서 ‘끊임없이 상속하는 오온을 가립하여 아트만(ātman)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집에 사로잡혀 이 아트만을 오온의 상속과 별개의 실물이라고 고집하나, 모든 번뇌는 이러한 아트만에 집착하는 아집에서 생기는 까닭에 그러한 사람들은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없다고 외수반두는 단언한다. 이 아트만이 단지 상속하는 오온에 대한 세속적 명칭에 불과한 이유를 묻는 질문자에게 외수반두는 실재의 아트만은 현량(現量)과 비량(比量) 어느 것으로도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뿌생(Poussin)은 경증(經證)은 비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수반두가 현량과 비량만을 제시하고 경증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sup>1)</sup> 그러나 후대 디그나가(Dignāga) 인식론의 맹아로서 이해될

1) 뿌생(Pruden 1990, 1359. n.4)

수도 있는 뿌생의 이러한 해석은 「파아집품」 전반부에서 전개되는 불교 내 학파간의 논쟁의 틀과는 매우 다르다. 「파집아품」 전반부의 구성 특징은 대론자들은 자신의 논리의 근거로서 적극적으로 경전을 인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대론자들은 서로 상대방이 인용하는 경전에 대한 해석 차이를 드러내며 이러한 경전의 해석 차이가 불교 내 ‘무이논쟁’의 근본 시발점임을 시사한다.

뿌드갈라론<sup>2)</sup>을 주장하는 학파들은 7세기경에 일곱 부파로 언급될 정도로 많았지만<sup>3)</sup> 뿌드갈라론자들의 현존하는 독자적 논서 자료들이 빈약하다. 따라서 뿌드갈라론자들에 대한 파악은 거의 비판자들의 논서들에 의지해 알려지고 있는 까닭에 뿌드갈라론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파아집품」 중에서 불교 내 학파간의 논쟁에서 대론자들의 논리 근거로서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경전들의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 윤곽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하고자 한다. 인용된 경전들의 출처는 선행연구에 크게 의지하고 있으며<sup>4)</sup> 이 논문에서 일부 보완하였다. 「파집아품」의 본문은 현장 한역본(T29)을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대론자들의 인용 경전 문구는 필요한 경우만 인용하였다.

## II. 인용 경전의 분석

고려대장경에는 경명(經名)과 경번호(經番號)가 없지만 대정신수대장경에는 경번호가,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과 그리고 PTS의 영역본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경명에 경(sutta)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초기불전연구원의 한글 빠알리 경장에는 경명과 경번호가 모두 나온다. (각목스님 역 2009a, 79-80) 한글 빠알리 경장의 경명은 대체로 *uddāna*에 근거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파집아품」 본문에 『六生喻契經』 등 명시적으로 경명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서술의 편의상 모두 경명과 경번호를 사용했

2) 뿌드갈라(*pudgala, puggala*)는 개아(個我), 영혼, 인격주체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러한 번역용어들은 뿌드갈라론자들의 주장을 왜곡 또는 희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뿌드갈라라고 그대로 음사해 사용한다. ‘뿌드갈라론자’ 또는 ‘독자부 뿌드갈라론자’의 표현은 여러 형태의 뿌드갈라론자들이 존재했을 가정에 근거하여 「파집아품」에 등장하는 뿌드갈라론자에 국한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정상교 2016, 52 참조.

3) 폴 윌리엄스는 뿌드갈라론은 특히 독자부와 정량부리는 두 개의 학파와 이 양자로부터 파생한 부파들과 연관된 이론이라고 하지만(안성두 역 2013, 178), 7개 부파 중에는 대중부 계통인 계륵부도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상교 2016, 55 참조.

4) 뿌생(Pruden, 1990); 권오민 역주(2015(2002)); 이종철 역주(2015).

다. 아함경 경명은 한글대장경의 것을, 니까야(Nikāya) 경명과 번호는 초기불전연구원의 것을 따랐으며 아함경의 경번호는 대정신수대장경에 의한 것이다. 「과집아품」의 14개 논쟁 주제 내의 34개 곳에서 인용된 90여 개 경전이 분석되었으며 서술은 「과집아품」에 나타나는 순서에 거의 따른다.

## 1. 오온무아

「과집아품」에서 외수반두가 가장 먼저 인용한 경전 문구는 ‘오온무아’에 관한 것이다.

색[은], [수온, 상온, 행온 내지 식[은]은 무아이다.<sup>5)</sup>

인용 문구에는 오온무아로 간략히 나타나지만 「과집아품」 전체 문맥을 보면 오온의 무상-고-무아를 함의한다. 외수반두는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이 뿌드갈리는 색과 같은 것이라고 또한 색과 별개의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붓다가 여러 경전에서 오온은 무이라고 명시적으로 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가설법장(不可說法藏)은 붓다의 설법과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오온의 무상, 고, 무이는 많은 초기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용된 경전을 적시하기는 어렵지만 오온무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하고 있는 경전은 상윳따 니까야의 제22주제(Khandha-samyutta)이며 그 중 특히 제2품인 「무상품(Anicca-vagga)」이다.<sup>6)</sup> 제22주제 중 제6품 「속박품(Upayavagga)」에는 붓다의 두 번째 설법<sup>7)</sup>으로 알려진 『무아상경』<sup>8)</sup>을 포함하고 있다.

무상, 고, 무아는 단지 병렬로 나열되는 경우도 있지만<sup>9)</sup> 『무아상경』과 같이 무상이 고의 원인이고, 고는 무아의 원인이 되는 순차적 관계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무상’의 구체적 설명은 없지만 『빠알리 율장』에 근거하면 초전법륜에서 췌단냐(Koṇḍañña)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

5) 『구사론』(T29, 153c13-14): 世尊何故作如是言色乃至識皆無有我.

6) 제22주제에서 오온은 다양한 정형구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오온무아를 강조한다.

7) 페터(Vetter)는 역사적으로 『초전법륜경』은 인정하지만 『무아상경』이 두 번째 설해진 경전이라는 율장의 전승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김성철 역 2009, 112).

8) SN 22,59 Anattalakkhaṇa-sutta와 잡아함 제2권 34경 『五比丘經』.

9) 예를 들어 『범구경』 277-279 계승(Hinüber and Norman 1995, 78).

다. 라는 티 없고 때가 없는 법안(法眼)이 생겼다는 구절과 연관 시킬 수 있다.<sup>10)</sup> 따라서 이때의 '무상'은 '연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와수반두가 가장 먼저 인용한 경전 문구는 '오온무아'이지만 「과집아품」의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도 역시 붓다의 '오온무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sup>12)</sup>

## 2. 인식대상으로서의 뿌드갈라는 무상하다

뿌드갈라는 여섯 가지 식(6식) 모두에 의해 간접적으로 인식된다는 주장을<sup>13)</sup> 논파한 뒤 와수반두는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의 그 의미가 만약 뿌드갈라 혹은 색과 뿌드갈라 둘로 말미암아 식이 일어난다고 양보하더라도 이는 경전에 명백하게 어긋난다며 잡아함경 제8권 214경 『二法經』과 잡아함경 제9권 238경 『因緣經』 두 개의 경전을 인용한다. 『二法經』은 SN 35:93 Dvaya-sutta에 해당한다. 『因緣經』에 해당하는 니까야는 나타나지 않는다.

## 3. 6식 모두에 의해 뿌드갈라는 인식된다

뿌드갈라가 6식 모두에 의해 인식된다는 독자부의 주장에 대해 와수반두는 그 경우 눈의 인식대상인 색은 소리 등과 같아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논리적으로 논파한 뒤 그 구체적 경증으로서 중아함 211경 『大拘絺羅經』을 인용한다. 『大拘絺羅經』은 MN 43 Mahāvedalla-sutta에 해당하며 와수반두가 인용한 부분은 SN 48:42 Unṇābhbrāhmaṇa-sutta의 독립된 경전으로도 나타나나 해당 한역경은 빠져있다. 이에 대해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은 와수반두가 『大拘絺羅經』에만 근거해서 그 다섯 가지 감각기관들 각각은 그들 자신의 인식대상을 갖는다고 단언하나 다른 경전 즉 명시적으로 제시한 『六生喻契經』과 와수반두의 논리체계와 모순이 있다고 비판한다. 이

10) 전재성 역주 2014, 107.

11) 초전법륜 가운데 계속해서 나머지 네 명의 사문들이 쾨단나와 같은 법안을 얻는다. 『빠알리 율장』에 의하면 초전법륜 바로 뒤에 설해지는 『무아상경』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나오는 '무상'은 이와 같이 이미 5명의 비구들이 법안을 얻은 후이기 때문에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라고 바로 붓다가 질문했다고 가정할 때 설득력이 있다.

12) 『구사론』(T29, 154c18-19): 非我者何. 謂蘊處界.

13) 『成實論』의 “又汝法中我以六識識. 如汝經說. 因眼所見色故 我壞是則眼識所識(T32, 0260a)”에 의하면 이 주장의 근거 경전이 있는 듯하다. 我壞의 '壞'는 '불거져 나온 혹'의 의미로 해석된다.

『六生喻契經』은 증일아함경 38품 8경, 잡아함경 1171경 『六種衆生經』 및 SN 35:247 Chappāṇakopama-sutta<sup>14)</sup>에 해당한다.

독자부의 『六生喻契經』의 인용에 대해 외수반두는 뿌드갈라론자들이 붓다께서 비유로서 설한 안 등의 6근 즉 ‘인식기관’의 용어에 대하여 직역을 한 결과로서 이 경전에서 설해진 안 등의 6근은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반박 논리를 세워 『大拘絺羅經』과 『六生喻契經』과 모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논리의 경증으로서 잡아함경 제8권 222경 『知識經』의 경전 문구를 다시 인용한다. 외수반두는 이 『지식경』에서 뿌드갈라는 통달되어야할(abhiññeya) 일체의 대상도 알아져야할(pariññeya) 일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뿌드갈라는 인식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22경 『지식경』의 이웃 경인 224경 『斷經』에 의하면 끊어야 할 대상에도 뿌드갈라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식경』은 논리적 인용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 『지식경』에 해당하는 니까야는 없으나 내용상 이 경전은 SN 35:26 Parijānana-sutta를 축약한 경으로 생각된다. 『단경』은 SN 35:24 Pahāna-sutta와 내용이 일치한다.

#### 4. 뿌드갈라는 오온의 여러 명칭 중 하나일 뿐이다

외수반두는 명시적으로 『人契經』과 『頻毘婆羅契經』의 두 경전을 인용하여 뿌드갈라라는 그 단어는 오온만을 가리킬 뿐이라고 붓다가 설하였다고 주장한다. 잡아함 306경 『人經』은 니까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경전에서는 poṣa(양육자) 대신 士夫(puruṣa)로 나타난다. 외수반두는 붓다는 항상 요의경(了義經)에 의지하라고 가르쳤으며 『人經』은 요의경인 까닭에 『人經』에서 이야기하는 뿌드갈라라는 그 단어는 오온만을 가리킬 뿐이라는 것에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외수반두는 다시 자신 논리의 보충근거로 중아함 제11권 62경 『頻鞞娑邏王迎佛經』을 인용한다. 이 경전은 현존하는 니까야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 5. 12처에 속하는 것만이 ‘일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명제는 「과집이품」 본문에서 『頻鞞娑邏王迎佛經』 인용의 바로 앞에 나타나지만 독립명제로 다루기 위한 서술의 편의상 뒤에 언급하였다. 외수반두는 12처에 관한 다

14)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서의 SN 35:247 Chappāṇakopama-sutta에 대한 해석은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의 해석과 부합한다(대립스님 역 2009, 『청정도론』 XIV:53, XV:16).

음과 같은 경전 문구를 인용한다.

바라문이며, 내가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이란] 단지 12처만을 의미한다.<sup>15)</sup>

와수반두는 어느 바라문에게 설한 경전을 인용하여 만일 그 뿌드갈라가 그 12처(āyatana)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뿌드갈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만일 뿌드갈라가 12처에 포함된다면 뿌드갈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의 근거로서 와수반두는 독자부 사람들이 독송하는 경전 하나를 인용한다.

일체란 그 눈과, 그 눈의 인식대상인 모든 색깔 [그 귀와 모든 소리……] ……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 조합만을 수용하며, 그것들[12처]을 수많은 범들 그 자체만을 ‘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일체’라는 말로 부른다.<sup>16)</sup>

와수반두는 그 경전에도 뿌드갈라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뿌드갈라가 어떤 실재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현장본에 의하면 위에서 인용된 두 경전은 별도의 것이지만 진제본 문맥에 의하면 두 경전은 동일 경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sup>17)</sup> 이 경전에서의 ‘일체’의 범수는 앞에서 인용된 222경 『지식경』에서의 ‘일체’의 범수보다는 적지만 ‘12처’의 범주의 측면에서는 같다. ‘일체’는 상윳따 니까야 제35 주제인 육처 상윳따의 제3품 Sabba-vagga의 주제이기 때문에 와수반두가 인용한 경전과 와수반두 이야기하는 독자부가 독송하는 경전에 대해 적시하기는 어렵지만 와수반두가 인용한 경전은 잡아함 319경 『一切經』으로 상윳따 니까야 SN 35:23 Sabba-sutta에 근사한다.

15) 『구사론』(T29, 154b07-08): 又薄伽梵告梵志言。我說一切有唯是十二處。

16) 『구사론』(T29, 154b10-12): 彼部所誦契經亦言。諸所有眼諸所有色。廣說乃至。苾芻當知。如來齊此施設一切建立一切有自體法。

17) 『구사론』(T29, 0306a01): 於彼部中有如此經。經言比丘。若所有眼。若所有色。廣說如經。由唯此量。比丘諸佛如來。說一切有窮顯一切說。

## 6. 유위법의 집합체는 공이다

와수반두의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와수반두는 공성(空性)을 강조하고 있는 세 개의 경전을 인용하여 유위법의 집합체는 공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첫 번째 경전은 잡아함경 1202경 『尸羅經』에 해당하며 SN 5:10 Vajirā-sutta와 대비할 수 있다. SN 5:10 Vajirā-sutta는 여러 곳에서 인용되는 ‘무아윤회’의 고전적 근거 경전의 위치를 갖는다.<sup>18)</sup> 두 번째 인용경전인 잡아굽마(Kṣudraka-āgama)에 속하는 경전의 출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공법공을 표방하는 대승적 성격이 강하다. 세 번째 인용경전 역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지만 『大乘莊嚴經論』 「覺分品」에서 ‘실물로서 뿌드갈라는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경증으로 인용된 3개의 아함경 중의 하나인 『增五經』과 대응한다.<sup>19)</sup> 세 번째 경에 대한 와수반두의 인용 문구와 『대승장엄경론』에 인용된 『중요경』의 문체와 서술 순서는 잘 일치한다.

## 7. ‘나’에 대해 ‘나’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

와수반두는 다시 『이법경』을 근거로 뿌드갈라는 제6식에 의해도 인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무아’에 대하여 ‘아’라고 말하는 것은 전도라고 설한 다음 경전 문구를 인용한다.

무아에 대하여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전도이며 심전도이며 견전도이다.<sup>20)</sup>

와수반두는 위 경전의 교리와 뿌드갈라론자들의 주장과의 모순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는다. 이에 뿌드갈라론자들은 그 동일 경전을 이용하여 무아에 대하여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도이지만 ‘나’에 대해 ‘나’라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고 답한다.

18) Vajirā-Sutta는 Kattavatthu(61); 『밀린다경』(28); 『청정도론』(대립스님 역 2009, XVIII: 25-28) 등에서 인용되는 유명한 경전이다. 그러나 Alexander Wynne은 무아 교리의 중요성과 역사적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념을 분명하게 언급한 빠알리 경전은 아마도 Vajirā-Sutta가 유일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서술한다 (Alexander Wynne 2011, 105-06).

19) 『大乘莊嚴經論』(T31, 649b26-31): 增五經中說若執有我有五過失。一者墮於見處起我見命者見。二者同於外道。三者僻行邪行。四者於空不欲不信不住。五者聖法不得清淨。如是依阿舍說。有實人亦不可得。

20) 『구사론』(T29, 154c16-17): 謂契經說 非我計我此中具有想心見倒。

이는 뿌드갈라론자들이 경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 단면이다. 여기서 인용된 경전은 잡아함 42경 『七處經』, 相應部22相應57經, AN 4:49 Vipallāsa-sutta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아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해 뿌드갈라론자들이 온처계(蘊處界) 모두가 무아라고 답하자 와수반두는 ‘나’와 오온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아집은 모두 무아에 대해 ‘아’라고 집착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잡아함 45경 『覺經』을 인용한다. 『각경』은 SN 22:47 Samanupassamanā-sutta에 해당한다.

와수반두는 이어서 윤회 과정에서 기억되는 자신들의 전생의 삶의 형태들 역시 오취온일뿐 ‘나’라는 것이 없으며 잡아함 46경 『三世陰世識經』을 제시한다. 『삼세음세식경』은 SN 22:79 Khajjanīya-sutta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뿌드갈라론자들은 와수반두가 인용한 같은 경전의 다음 문구를 들어 ‘나’의 의미에 대해 반문한다.

나는 과거세에 이와 같은 색을 가졌으며, [이와 같은 느낌을 ……] 등등<sup>21)</sup>

와수반두는 뿌드갈라론자들이 위 문구에서 ‘나’를 그 경전의 속뜻인 오온상속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pudgala-s)의 의미로 직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신견의 과실에 빠진 것이라 비판한다.

## 8. 일체지

뿌드갈라론자들은 뿌드갈라가 오온상속일 뿐이라는 와수반두의 주장에 대해 붓다의 일체지에 근거해 반박한다. 심심소는 찰나생멸하기 때문에 일체법을 알 수 있는 심심소는 존재할 수 없는 까닭에 붓다라는 뿌드갈라가 존재해야만 그 붓다라는 뿌드갈라가 일체법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와수반두는 일체지자인 붓다는 오온의 상속체일뿐 뿌드갈라가 아니라고 하며 그 근거로 다시 잡아함경 제44권 1188경 『尊重經』을 인용한다. 와수반두의 경전 해석에 의하면 삼세의 붓다들은 각자 다른 이름을 갖는 동일한 붓다의 오온상속체일 뿐이다. 나아가 오온의 삼세는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오온에만 근거하는 뿌드갈라로는 삼세의 붓다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뿌드갈라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 계송은 잡아함 1188경 『尊重經』, SN 6:2:10

21) 『구사론』(T29, 154c25-26): 若爾何緣此經復說我於過去世有如是色等.

Gāraṇa-sutta, 별역잡아함경 5권 제101경, AN 4:21 Uruvela-sutta 등에서 아직 설법을 결심하기 전의 붓다를 찬탄하는 범천의 게송이다.

## 9. ‘짐을 나르는 자’는 뿌드갈라이다

뿌드갈라는 다만 오온<sup>22)</sup>에 불과하다는 외수반두의 주장에 대해 뿌드갈라론자들은 ‘상식적’으로 짐을 나르는 자와 짐이 다르듯이 뿌드갈라와 오온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경전 문구를 제시한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짐, 짐을 취하는 것, 짐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짐을 나르는 자에 대하여 설하겠다.<sup>23)</sup>

외수반두는 먼저 뿌드갈라론자들의 ‘상식적’이란 표현에 근거해 그들의 불가설법장 역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서 ‘짐을 취한다는 것이 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이어서 이 경전에서의 뿌드갈라에 대한 붓다의 속뜻에 대해 이 경의 후반부와 『人經』를 다시 인용해 설명한다. 외수반두의 해석은 경전의 ‘짐을 나르는 자’는 단지 세속적 어법에 따른 표현일 뿐이다.<sup>24)</sup> 이 인용 문구에 해당하는 경전들은 중일아함경 제17권 사제품 제25(4), 잡아함경 73경 『重擔經』, SN 22;22 Bhāra-sutta 등이다.

## 10. 정견

뿌드갈라론자들은 화생 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건이라는 경전을 근거로 뿌드갈라는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외수반두는 붓다가 화생 중생이 분명히 있다고 설했기 때문에 자신도 화생 중생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화생 중생은 오온의 상속체일 뿐이므로 오온상속의 화생 중생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이라고 반박

22) 현장은 五取蘊으로 번역하며 현장본에 근거한 뿌생의 번역 역시 오취온(skandhas-of-attachment)으로 되어 있으나 진제역과 이종철 역주 2015, 397에 의하면 오온이다.

23) 『구사론』(129, 155a26-27): 吾今爲汝說諸重擔取捨重擔荷重擔者.

24) Gombrich는 이 경전에 근거한 독자부의 뿌드갈라론은 붓다의 은유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직역 주의자들의 형편없는 학설의 한 단편이라고 혹평한다(Gombrich 2005, 68).

한다. 여기서 정견은 팔정도의 정견이며 화생 중생에 의한 정견에 대한 논쟁은 『三彌底部論』에도 나타난다.<sup>25)</sup> 이에 해당하는 경전들 중에서 세간의 정견만 설명하는 경전은 AN 10:176 Cunda-sutta, 잡아함 784경 『邪正經』과 중아함 189경 등이며, 세간과 출세간의 정견 두 종류를 설명하는 경전은 SN 45:8 Vibhaṅga-sutta, DN 22 『대념처경』, MN 117 Mahācattārīsa Sutta, M 141 Sacca-vibhaṅga Sutta 등이다. 세간의 정견은 DN 2 Sāmaññaphala Sutta에 나오는 단멸론자인 아지따 계사캄발라(Ajīta Kesakambala)가 아자따삿뚜왕에게 설한 가르침을 그대로 역전시킨 것이다.<sup>26)</sup> 출세간 정견은 사제(四諦)에 대한 지혜(nāna)이다.

## 11. 한 명의 뿌드갈라가 세간에 태어나 존재한다는 표현 방식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은 경전에서 한 명의 뿌드갈라가 세간에 태어나려한다고 말할 때 즉 이 경우 뿌드갈라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으니 복수로 표현되는 오온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외수반두는 ‘오온이 한 사람’이란 표현은 많은 것이 모여 있는 것을 ‘한 무더기’라고 세속적으로 표현하듯이 이는 다만 은유적 표현일 뿐이라고 반박한다.<sup>27)</sup> 그리고 대론자의 인용 경전을 근거 삼아 뿌드갈라는 생겨나는 것임으로 그 뿌드갈라는 유위법에 속해야만 한다고 한다. 이에 뿌드갈라론자들은 앞의 온과 다른 별개의 오온을 취함으로써 뿌드갈라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문을 익힌 사람들이 ‘제관 또는 문법학자가 생겨났다.’와 같이 비유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외수반두는 『勝義空契經』을 인용하여 그들의 논리를 일축한다.

명시적으로 정명이 인용된 『勝義空契經』은 잡아함경 335경 『第一義空經』으로 이에 해당하는 니까야는 없으며 유사한 내용의 경전으로 두 개의 증일아함경이 존재한다.<sup>28)</sup> 인용문구 중 ‘업도 존재하고 과보도 존재한다.’는 붓다가 세간적 정견을 설할 때 포함된 내용이나 두 증일아함경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어색한 내용이다. 그리고 업

25) 『三彌底部論』(T32, 463a04-06): 復次何以故有我。答正見故。佛言有人見化生故正見。彼諸部見正見故。是故有我如是。

26) 페터는 세간의 정견의 정형구가 다소 고풍의 형식을 지니고 출세간 정견의 정형구는 후대의 것이라고 추정한다(김성철 역 2009, 79. n.7).

27) 경전의 문맥에 의하면 ‘eka’는 ‘탁월한’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경전에서 ‘한 명의 뿌드갈라가 태어난다.’에서 그 ‘한 명’이란 여래, 아라한, 정등각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전의 표현은 증일아함경과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만 발견된다.

28) 증일아함 제13권 7경(T02, 614a18-614b07); 증일아함 제49권 8경(T02, 819b11-820c01).

과 과보와 연관되어 ‘作者와 受者’가 아닌 행위자(作者, kāraṇa)만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과 함께 외수반두가 인용한 문구는 위의 증일아함경에는 없는 구절이며, 두 증일아함경에 비해 『第一義空經』은 짧은 경전으로 증일아함경 제30권 제7경에서 일부만 발췌하여 인용된 부분을 삽입하여 독립 경전으로 편집된 인상을 준다.<sup>29)</sup> 이어서 외수반두는 잡아함경 제15권 372경 『頗勒具那契經』을 인용하여 오온을 취하거나 버리는 어떠한 뿌드갈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頗勒具那契經』은 잡아함경 제15권 372경 『頗求那經』으로서 SN 12:12 Moliyaphaguna-sutta와 동일 경전이다.

## 12. 阿世耶(āsaya)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은 뿌드갈라가 단지 오온의 명칭뿐이라면 ‘어째서 붓다는 영혼(jiva, 命者)과 육체가 같다거나 별개의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한다. 붓다가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에 관한 경전들은 매우 많아 인용경전을 적시하기는 어렵다. 무기(無記)와 관련해서는 왓차곳따(Vacchagotta) 유행승과의 대화가 특히 많으며 그 중 AN 4:38 Patilina-sutta, MN 72 Aggivacchagotta-sutta가 유명하다. MN 72 Aggivacchagotta-sutta는 잡아함경 962경, 별역잡아함경 196경에 해당한다. Aggivacchagotta-sutta에서는 10무기이나 한역본에서는 주로 14무기로 나타난다.<sup>30)</sup>

외수반두는 존재하지도 않는 영혼(jiva)과 육체와의 같고 다름을 묻는 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에 대답 역시 있을 수 없으니,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질문한 사람의 阿世耶(āsaya)<sup>31)</sup>를 배려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밀란다왕문경』을 인

29)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권오민 역 1998, 187)에서 중현(衆賢)이 『승의공경』에서 인용한 ‘그것은 본래 없었다가 지금 있는 것으로, 있다가는 다시 무로 사라진다.’의 문구는 잡아함경 제13권 335경 『제일의공경』에는 나오지 않는 문구이다. 이는 증일아함경 제30권 제7경에 나온다. 이 문구는 중현이 외수반두의 삼세실유의 비판에 대한 반박의 근거 경증으로 인용된 문구이다. 한편 『청정도론』(대림스님 역 2009, IX X:20)에서 인용한 계승 ‘업을 짓는 자도 없고 과보를 경험하는 자도 없고’는 옛 스승들의 말씀이라고 한다.

30) 무기(avyākata, 無記)와 관련된 왓차곳따와의 대화는 상윳따 니까야 제33주제에서 10개경, 제44주제에서 4개경 등에서 나타난다. 니까야에서는 모두 10무기만이 나타나나, 『구사론』(T29, 103a21)과 잡아함 168경, 905경, 965경 등에서는 14무기가 언급되고 있으며 중아함 221경 『箭喻經』(MN 63)에는 10무기로, 長阿含 28경 『布吒婆樓經』(DN 9)에는 16무기로 나타난다.

31) 阿世耶(āsaya)를 진제는 ‘意’로, 현장은 ‘意樂’와 ‘阿世耶’로, 이종철은 ‘선입견’으로 번역한다(이종철 2015, 403). 阿世耶는 경전의 문맥으로 보면 ‘고정관념’과 ‘상대방 의중을 떠보는 것’ 두 가지 의미 모두를 내포한다고 이해된다.

용한다.<sup>32)</sup> 또한 외수반두는 ‘세간은 영원한가, 세간은 영원하지 않은가? 등의 4문항과 세간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등의 4문항,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등의 4문항 등도 붓다는 질문자들의 阿世耶를 배려해주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명시적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12가지 질문들은 그 뜻이 모두 같다고 하며 그 근거로 잡아함 96경 『鬱低迦經』을 인용한다. 『鬱低迦經』은 별역잡아함 199경과 SN 45:30 Uttiya-sutta에 해당한다.

### 13. 상견과 단견

외수반두는 앞에서 언급한 ‘무기’에 대한 자신의 설명이 옳다는 것이 다른 경전에 의해도 증명된다며 雜阿含經 제34권 962경 『見經』을 인용한다. 『見經』은 별역잡아함 경 196경, MN 72 Aggivacchagotta-sutta에 해당한다. 외수반두는 위 경전의 인용 문구를 요약하여 계승으로 오온의 상속 중에 업과 과보는 존재하지만 영혼(jiva)은 실유로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지만, 붓다가 영혼(jiva)은 오온을 가리키는 가유일 뿐이라는 언급도 하지 않은 이유는 질문자가 공성(空性)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 것을 배려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한다. 여기서 외수반두가 말하는 공성은 연기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외수반두는 뿌드갈라론자들에게 붓다가 현재의 뿌드갈라는 있다고 명시적으로 대답하면서 죽은 뒤의 뿌드갈라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자 그들은 붓다가 질문자들이 상견의 과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외수반두는 붓다가 사후의 뿌드갈라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해서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면 붓다는 일체지자가 아니라고 부정해야하고, 또한 붓다가 사후의 뿌드갈라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면 뿌드갈라의 상주가 성립되어 상견의 과실에 빠지게 된다고 경증으로 두 개의 경전을 인용한다.

‘마이뜨레야(Maitreya)여, 지금의 그대는 미래세에 붓다 [아라한, 정등각자]가 될 것이다.’라고 붓다가 명시적으로 말하였다.<sup>33)</sup>

32) 이종철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이 인용구절은 현존 빠알리, 한역본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이종철 역주 2015, 404, n.7).

33) 『구사론』(T29, 156b17-18): 佛記慈氏汝於來世當得作佛.

니까야에서 미래불 마이뜨레야에 대한 언급된 것은 DN 26 Cakkavatti-sīhanāda Sutta<sup>34)</sup>뿐이며 이에 해당하는 한역본은 장아함 6경 『轉輪聖王修行經』이다. 이 두 경전들은 붓다가 마이뜨레야에게 직접 설한 것이 아닌 비구들에게 마이뜨레야 미래불에 대해 설한 것이다. 한편 『轉輪聖王修行經』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아함 15권 70경 『轉輪王經』에는 마이뜨레야에 대한 언급 부분은 빠져 있다.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는 중아함경 제13권 66경 『說本經』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뜨레야에게 직접 수기를 주는 것은 아니다.

외수반두는 죽은 뒤의 뿌드갈라의 존재에 대해서 붓다가 명시적으로 설한 또 하나의 경전을 인용한다.

붓다는 제자들이 목숨이 다한 후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곳에 태어났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다].<sup>35)</sup>

이 인용 문구는 장아함경 제5권 4경 『閻尼沙經』 또는 중아함경 제18권 77경 『娑雞帝三族姓子經』에 근거한다. 『閻尼沙經』은 DN 16 Janavasabha Sutta에 해당하며 『娑雞帝三族姓子經』은 MN 68 Naḷakapāna sutta에 해당한다. 외수반두의 뿌드갈라상주론 비판에 대해 뿌드갈라론자들은 뿌드갈라는 진실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증일아함 40품6경 『淨諸漏法經』을 인용한다. 외수반두는 ‘유아’를 주장하는 것도 역시 사견이란 동일 경전의 다른 문구를 인용하여 그 경전은 논쟁의 경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증일아함 『淨諸漏法經』은 중아함 10경 『漏盡經』과 MN 2 Sabbāsava Sutta에 포함되며 『漏盡經』과 MN 2 Sabbāsava Sutta는 동일 경전이다. 『淨諸漏法經』은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중아함 10경 『漏盡經』의 축약본이다.

#### 14. 도대체 누가 윤회하는가?

뿌드갈라론자들은 대론자가 끝내 뿌드갈라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도대체 누가 윤회를 하는가에 대해 윤회와 관련한 경전을 인용하면서 뿌드갈라가 윤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한다.

34) Gombrich는 경전의 구조상 이 경전은 후대에 제작되었거나 적어도 많은 부분이 후대에 첨부된 것으로 생각한다(Gombrich 1988, 83-85).

35) 『구사론』(T29, 156b18-19): 記弟子身壞命終某甲今時已生某處.

붓다는 무명에 덮여있고 갈애에 얽매어 있는 그 중생들은 생사윤회로 치달아 흐른다고 설한다.<sup>36)</sup>

와수반두가 뿌드갈라론자들이 윤회의 주체인 뿌드갈라가 전생의 오온을 버리고 내생의 다른 오온을 취하는 그러한 윤회방법은 앞에서 이미 논파된 늙은이는 젊은이의 신체 변화인 것과 같이 이는 수론파의 전변설과 같다고 주장한다. 와수반두는 ‘중생’은 단지 오온의 상속체일뿐이며 윤회의 추진력은 갈애일 뿐이라는 것이 이 경의 속뜻이라고 주장한다. 인용 문구의 내용은 상윳따 니까야 제15주제인 Anamatagga-samyutta이기도 하여 특정한 경전을 적시하기는 어렵다. 그 중 예를 들면 잡아함 938경 『淚經』, 별역잡아함 331경, 증일아함 51품1경, SN 15:3 Assu-sutta 등이다.

마지막으로 뿌드갈라론자들은 만일 중생이 찰나 생멸하는 오온이라면 ‘과거의 나는 이리이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붓다의 예를 들어 경전을 인용한다.

바로 내가 과거에 묘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었다.<sup>37)</sup>

와수반두는 현재의 붓다를 이루고 있는 그 오온은 과거 묘안을 이루고 있는 그 오온과 동일한 상속체로 형성된 것이지만 다만 세속적 표현으로 붓다가 ‘과거의 나는 이리이러했다’고 설한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더 이상 경전을 인용하지 않는다. 이 인용 문구와 관련된 중아함경 8경 『七日經』, 증일아함경 40품1경, AN 7:69 Sunetta-sutta, AN 7:62 Suriya-sutta<sup>38)</sup>, AN 6:54 Dhammika-sutta 등의 경전들의 문구는 ‘내가 과거에 묘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 사람들의 스승에 대해 말하겠다.’이다. 즉 경전에서 묘안과 붓다는 동일인물이 아니지만 두 대론자는 모두 묘안을 붓다의 전신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아 별도 경전의 존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15. 인용경전들의 경전군 분포특징 분석

이상 앞에서 경증에 근거한 14개 주제에 대한 논쟁을 끝으로 두 대론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논쟁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할 경전을 제시하지 않는다. 「파집아품」

36) 『구사론』(T29, 156c03-04): 薄伽梵於契經中說諸有情無明所覆貪愛所繫馳流生死.

37) 『구사론』(T29, 156c09-10): 世尊作如是說. 今我於昔爲世導師名爲妙眼.

38) 『청정도론』 XⅢ. 36에서는 『일품 개의 태양 경』으로 언급한다.

의 14개 주제에 대한 34곳에서 인용된 90여 개 경전을 「파집아품」에서 나타나는 순서로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현존하는 4 아함경과 4 니까야의 불일치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경전들이 서로 다른 아함이나 니까야에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인용경전 분석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잘 확인된다. 외수반두가 24곳에서 인용한 경전 중 5곳의 경전은 한역본만 존재하며 3곳의 경전은 니까야와 한역본에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16곳의 경전만이 니까야와 한역본에 모두 존재한다. 반면에 뿌드갈라론자들의 10곳의 인용경전들의 경우는 니까야와 한역본에 모두 존재한다.

표 1에서 보여주듯이 두 대론자들이 인용한 경전들은 4아함 혹은 4니까야 중 거의 복수의 경전군에 포함되나 외수반두의 인용 경전의 대부분은 잡아함경 혹은 상윳따 니까야에 속하는, 반면에 뿌드갈라론자들의 인용경전은 모두 중일아함경 혹은 앙굿따라 니까야에 속하는 경전군 분포 속성을 보인다.<sup>39)</sup>

〈표 1〉 인용경전 목록

	인용 경전		비고
	외수반두	독자부 뿌드갈라론자	
1	雜阿含34經/SN22:59		SN 22 주제
2	雜阿含238經		
3	雜阿含214/SN35:93		*
4	中阿含211經/MN43/SN 48:42		*
5		增壹阿含38品8經/雜阿含1171經/SN35:247	六生喻契經
6	雜阿含222經/SN35:26		SN 35 주제
7	雜阿含306經		人契經
8	雜阿含319經/SN35:23		SN 35 주제

39) 니까야에 대한 대략적 특징으로 Schmithausen은 네 번째 정려(the Fourth Dhyāna)에서 발생하는 해탈적 통찰에 대한 정형구들을 분석하여 이들 정형구들이 다가 니까야와 앙굿따라 니까야에는 나타나지만 상윳따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오온의 무상, 고, 무이를 꿰뚫어 보는 식별적 통찰(paṇṇā)에 의한 해탈에 관련된 정형구는 상윳따 니까야에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다가 니까야와 앙굿따라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Schmithausen, 1981, 204, 219). 한편 각목스님에 의하면 상윳따 니까야는 재가자에 대한 가르침이 많지 않으며 또한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들을 위한 가르침보다는 이미 법에 대한 확신이 굳건하고 교학과 수행에 깊이 들어간 구참 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다. 반면에 재가자들을 위한 보시와 지계로 천상에 태어나는 것[施戒生天]을 강조한 가르침은 상대적으로 앙굿따라 니까야에 풍부하게 나타난다고 한다(각목스님 역 2009a, 60).

9	中阿含62經/雜阿含1074經/ 別譯雜阿含13經		頻毘婆羅契經/*
10	雜阿含1202經/別譯雜阿含218經/ SN5:10		
11	雜阿笈摩		
12	增五經		
13	雜阿含42經/相應部22相應57經/ AN4:49	雜阿含42經/相應部22相應57經 /AN4:49	
14	雜阿含262經/SN22:90		
15	雜阿含45經/SN22:47		*
16	雜阿含46經/SN22:79		*
17		雜阿含46經/AN22:79	
18	雜阿含1188經/別譯雜阿含101經/ SN6:2:10/AN4:21		
19		雜阿含73經/增壹阿含25品4經/ SN22:22	
20		AN10:176/雜阿含784經/ 中阿含189經	*
21		增壹阿含8品3經/增壹阿含12品3經	*
22	雜阿含335經/增壹阿含37品7經/ 增壹阿含51品8經		勝義空契經/*
23	雜阿含372經/SN12:12		頗勒具那契經/*
24		AN4:38/雜阿含962經/ 別譯雜阿含196經/MN72	
25	밀린다왕문경		
26	雜阿含965經/別譯雜阿含199經/ SN45:30		筏蹉經
27	雜阿含963經/別譯雜阿含197經		SN 33 주제
28	雜阿含962經/別譯雜阿含195經/ MN72		
29	中阿含66經/中阿含70經/ 長阿含6經/DN26		
30	長阿含4經/中阿含77經/DN16/ MN68		SN 55 주제
31		中阿含10經/增壹阿含40品6經/MN2	*
32	雜阿含961經/別譯雜阿含195經/ SN44:10		
33		雜阿含938經/別譯雜阿含331經/ SN15:3 增壹阿含51品1經	SN 15 주제

34		中阿含8經/增壹阿含40品1經/ AN6:54/ AN7:62/AN7:69	
----	--	-------------------------------------------	--

\*는 『성실론』 「無我品」과 「有我無我品」에서도 인용된 경전이다. 비고란의 경명은 「과집아품」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된 경명이다.

외수반두의 24곳의 인용경전 중 20곳의 경전은 공통적으로 잡아함경 혹은 상윳따 니까야에 속하며, 뿌드갈라론자들의 10곳의 인용경전은 모두 공통적으로 증일아함경 혹은 앙굿따라 니까야에 속한다.<sup>40)</sup> 이와 같은 경전군 분포 특징에 근거하면 ‘무이논쟁’에서 외수반두는 주로 잡아함경 혹은 상윳따 니까야의 경전군의 경전을,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은 증일아함경 혹은 앙굿따라 니까야 경전군의 경전을 각각 자신들 주장의 근거 경전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용경전의 4아함 혹은 4니까야 중 분포 분석 결과는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은 ‘무이논쟁’에서 증일아함경 혹은 앙굿따라 니까야 계통의 경전을 요의경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III. 토의

#### 1. 대론자들의 경전 해석 태도

「과집아품」에서 대론자들의 경전 해석의 태도는 크게 요의경과 불요의경 유형으로 요약된다. 외수반두는 자신이 인용한 『人契經』을 명시적으로 요의경이라 주장하면서 뿌드갈라론자들이 뿌드갈리는 오온의 여러 세속적 이름 중의 하나라고 단언한다. 외수반두는 붓다가 설한 요의경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의 뜻을 이해 못하게 됨으로써 번뇌가 많은 것보다도 더 무거운 죄를 범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sup>41)</sup> 그러나 『아비달마장현종론』2권(권오민 1998, 186-87)에서 요의와 불요의의 논쟁에서 보듯

40) 『성실론』에서 두 대론자들이 인용하는 경전들(표 1 비고란의 \* 표시)도 유사한 분포 특징을 보이지만 여기서 독자부는 『법구경』 등도 인용하고 있다. 『成實論』(T32, 0259c09): 又佛說今喜後喜爲善兩喜. 若但五陰. 不應兩喜. 이는 『법구경』 16, 18계송에 해당한다.

41) 『구사론』(T29, 079b18-19): 於世尊了義所說以別義釋令成不了. 與多煩惱者爲犯重罪緣. 그러나 이의 반대 경우도 성립될 것이다.

이 같은 경에 대한 해석 태도는 다를 수가 있다. 와수반두가 외도의 아트만과 뿌드갈라론자들을 비판하면서 인용한 『勝義空經』을 요의경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비달마장현종론』에서는 불요의경으로 분류되어 와수반두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와수반두는 뿌드갈라론자들이 제시하는 경전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그 속뜻을 모르는 직역주의자의 태도라고 비판한다. 이는 불교 내에서 ‘무이논쟁’은 이와 같은 경전 해석의 차이에 의해 일차적으로 촉발된 것임을 시사한다. 불교 내부의 무이논쟁은 뿌드갈라론자들의 경전해석에 근거해 윤회와 해탈주체로서 뿌드갈라를 주장에 비롯된 것으로 비판자들은 뿌드갈라론이 제기된 이후에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자신들의 윤회 주체에 대한 아비달마 용어와 이론들을 정교하게 개발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 중 와수반두는 『구사론』에서 오온상속을 주장한다.<sup>42)</sup> 따라서 붓다가 브라만의 아트만을 부정한 무이론과 붓다 입멸 후 불교 내부에서 전개된 ‘무이논쟁’은 그 기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이러한 의미에서 ‘무이논쟁’에서 뿌드갈라론자들이 요의경으로 제시하는 경전들을 면밀한 분석은 뿌드갈라론자들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2.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의 뿌드갈라

『Kathavattu(論事)』, 『識身足論』, 『성실론』 등의 독립된 품뿐만 아니라 『대비바사론』, 『청정도론』 등 여러 논서들 곳곳에서도 뿌드갈라론자들이 비판을 받아 온 사실을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인도불교사를 관통해서 뿌드갈라론자들이 여러 부파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전 중에 나타나는 ‘뿌드갈라’라는 단어에 대한 직역과 은유의 해석 차이 때문인 듯하다.

와수반두는 「과집이품」 도입부에서는 외도들이 오온의 상속체와 별개의 실물(dra-vya)이라고 주장하는 아트만(ātman)은 현량과 비량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그 아트만은 실물로서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구체적인 논파대상의 첫 상대로 독자부가 주장하는 뿌드갈라를 지칭하는데 이는 와수반두의 입장에서는 독자부 뿌드갈

42) 호진은 오온상속의 경전적 근거는 없지만 이 상속이 죽어도 중단되지 않으며, 자립적인 것은 그 자체 속에 ‘계속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호진 2015, 155). 그러나 와수반두가 인용한 『三世陰世識經』(SN 22:79 Khajjanīya-sutta)은 이러한 ‘계속의 원리’의 가장 근사한 근거 경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43) 뿌드갈라론자를 비롯한 불교 내 여러 학파들은 ‘오온무아’의 붓다교설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무이윤회’의 기작을 해명하려는 과정에서 ‘무이논쟁’이 촉발되고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집이품」의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도 붓다가 설한 무이설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본고 각주 12) 참조.

라론자들이 주장하는 뿌드갈라와 외도들이 주장하는 아트만을 동일시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수반두가 이해한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이 주장하는 뿌드갈라는 실유이며 외수반두는 그들이 주장하는 뿌드갈라는 가유임을 논증하려 한다.

외수반두는 대론자에게 던진 첫 질문은 그들이 주장하는 뿌드갈리는 실유인가? 아니면 가유인가? 이다. 이 질문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단순 질문이고, 둘째는 외수반두가 자신의 논쟁전개를 위한 논리로서 그 뿌드갈라가 가유라고 인정할 경우 논쟁을 끝내겠다는 의도이고, 셋째는 외수반두가 이해하는 한 당시에 혹은 역사적으로 실유의 뿌드갈라 또는 가유의 뿌드갈라를 주장하는 두 가지 형태의 뿌드갈라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sup>44)</sup>

이 질문에 대한 뿌드갈라론자들의 대답은 그 뿌드갈리는 실유도 가유도 아닌 내적이고, 집수된 현재의 오온에 근거하여 ‘뿌드갈라’라고 말을 한다고 대답한다. 이는 『구사론』 분별제품에서 외도들의 대답과 매우 유사하다.<sup>45)</sup> 내적이고, 집수된 현재의 오온에 근거한다(upādāya)는 뿌드갈라론자들의 주장에서 뿌드갈라와 오온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뜻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라는 개념은 외수반두가 뿌드갈라론자들의 주장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삼세’를 ‘현재’로 왜곡시킨 듯하다. 왜냐하면 뿌드갈라론자들의 불과 뿔감, 우유와 타락 및 술과 식초의 세 가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뿌드갈리는 시간성(상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는 삼세제불의 근거로 외수반두에 의해 논파된다.

그러나 「과집아품」에서의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이 제시하는 뿌드갈라에 대한 불과 뿔감의 비유, 그리고 그 비유의 부연설명을 위한 우유와 타락 그리고 술과 식초의 세 가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같은 현상들은 모두 화학적 반응에 의한 변화이다. 과학용어인 화학적 반응은 뿌드갈라론자들이 사용한 용어 ‘상속(santati)’에 대응시킬 수 있다.<sup>46)</sup> 우유와 응유 및 술과 식초의 비유에 대한 외수반두의 언급은 없지만 불과 뿔감의 비유에 대한 외수반두의 집요한 반론은 불과 뿔감의 관계를 화학적 반응

44) 중기 중관 문헌들을 중심으로 뿌드갈라설을 분석한 정상교에 의하면, 흔히 알려진 비즉비유으로서의 뿌드갈라 이외에도 ‘온과 동일한 뿌드갈라’ 및 ‘심과 동일한 뿌드갈라’, 그리고 ‘온과 다른 뿌드갈라’라고 하는, 사실상 온과의 관계 설정이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모두 보이고 있다. 또한 뿌드갈라설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뿌드갈라의 존재 양태에 관해서는 오온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뿌드갈라가 가설적 존재(prajñapti)인지 실제적 존재(dravya)인지에 관해서도 통일된 기록을 전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정상교 2016, 65).

45) 『구사론』(T29, 047c03): 能捨此蘊能續餘蘊。內用士夫。

46) 『구사론』(T29, 153a05-06): 此能燒然彼物相續令其後後異前前故。

이 아닌 시간, 팔사(八事), 공존(共存) 등 모두 불과 땀감의 물리적 관계성과 물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전개된다. 와수반두는 상속과 우유와 응유 및 술과 식초의 비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듯하다.<sup>47)</sup>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이 내세우는 뿌드갈라는 ‘사람(뿌드갈라)’의 화학적 변화(상속)를 상징한 그들 아비달마의 결과물이다. 그들이 제시한 세 가지는 비유에 의하면 아무개라는 범부(오취온)가 어떤 수행결과로 성인(오온)의 지위를 얻었을 경우 그 사람(뿌드갈라)은 오온의 속성이 물리적 변화가 아닌 그 범부의 오취온과 같지도 않고, 그 성인의 오온과 다르지도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아비달마적 표현으로 해석된다.<sup>48)</sup> 그들이 초기 경전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편적으로 사용된 뿌드갈라 용어를 아비달마 용어로 채용한 것은 뿌드갈라의 함의에는 불교적으로 이미 오온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경전에서 사용되는 붓다의 언어인 뿌드갈라 용어를 채용함으로써 윤회와 해탈의 주체를 각각 ‘부정한 사람’과 ‘청정한 사람’ 즉 ‘사람’으로 국한시키려는 구체적 시도이었는지도 모른다.

## IV. 결론

『아비달마구사론』 「과집아품」에서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과 와수반두에 의해 인용된 경전들을 분석에 근거하여 독자부 뿌드갈라론자에 대해 좀 더 이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분석된 경전은 14개 논쟁 주제 내의 34곳의 90여 개 경전이며 이 중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이 인용한 부분은 10곳의 30여 개 경전이 분석되었다.

현존하는 4 아함경과 4 니까야의 불일치와 동일내용의 경전들이 서로 다른 아함이나 니까야에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인용경전 분석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잘 확인된다. 와수반두가 24곳에서 인용한 경전 중 5곳의 경전은 한역본만 존재하며 3곳의 경전은 니까야와 한역본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16곳의 인용경전만이 니까야와 한역본에 모두 존재한다. 뿌드갈라론자들의 10곳에서 인용한 경

47) 그러나 이 부분은 와수반두가 뿌드갈라론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한 단면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호진은 증일아함 21품 1경 등에서의 우유가 변하여 응유가 되는 경전 문구를 인용하여 『제일의공경』의 ‘無作者’에서 발생하는 상속설의 과보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호진 2015, 155-56). 그러나 「과집아품」에서의 ‘우유와 응유’는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도 사용하는 비유이다.

48) 와수반두는 이러한 변화를 외도의 전별설과 동일시한다.

전은 니까야와 한역본에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외수반두의 24곳의 인용경전 중 20곳의 경전은 공통적으로 잡아함경 혹은 상윳따 니까야에 속하며, 뿌드갈라론자들의 10개 인용경전은 모두 공통적으로 증일아함경 혹은 앙굿따라 니까야에 속하는 분포적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인용경전들의 4아함 혹은 4니까야 중 경전군 분포특징에 근거하면 『아비달마구사론』 「과집아품」 ‘무이논쟁’에서 외수반두는 주로 잡아함경 혹은 상윳따 니까야의 계통의 경전을, 반면에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은 증일아함경 혹은 앙굿따라 니까야 계통의 경전을 각각 자신들의 근거 경전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뿌드갈라론자들의 논서와 함께 『아비달마구사론』 「과집아품」의 ‘무이논쟁’에서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이 요의경이라 주장하는 그들의 인용경전들의 경전군 분포특성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경전 용어에서 채용한 뿌드갈라와 독자부 뿌드갈라론자들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약호

- AN *Aṅguttara Nikāya, Ekadhamma Suttas*, translated from the Pali by Thanissaro Bhikkhu. Access to Insight (BCBS Edition), 2013.
- DN *Dīgha Nikāya, The Long Discourses*, translated from the Pali by Thanissaro Bhikkhu. Access to Insight (BCBS Edition), 2013.
- MN *Majjhima Nikāya, The Middle-length Discourses*, translated from the Pali by Thanissaro Bhikkhu. Access to Insight (BCBS Edition), 2013.
- SN *Samyutta Nikāya, The Grouped Discourses*, translated from the Pali by Thanissaro Bhikkhu. Access to Insight (BCBS Edition), 2013.

## 1차 자료

- 『阿毘達磨俱舍論』, 尊者世親造, 三藏法師玄奘譯, 大正29, No.1558.
- 『阿毘達磨俱舍釋論』, 婆藪槃豆造, 陳眞諦譯, 大正29, No.1559.
- 『大乘莊嚴經論』, 無著菩薩造, 大唐天竺三藏波羅頗蜜多羅譯, 大正31, No.1604.
- 『成實論』, 訶梨跋摩造, 姚秦鳩摩羅什譯, 大正32, No.1646.
- 『三彌底部論』, 失譯, 大正32, No.1649.

## 2차 자료

- 각목스님 역. 2009a. 『상윳따 니까야 1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 2009b. 『상윳따 니까야 2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 2009c. 『상윳따 니까야 3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 2009d. 『상윳따 니까야 5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권오민 역. 1998.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권』.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 . 2009. 「불설(佛說)과 비불설(非佛說)」, 『문학/사학/철학』 17(서울: 한국불교사연구소), 86-153.
- . 2015. 『아비달마불교』, 서울: 민족사.
- . 역주. 2015. 『아비달마구사론 4권』, 서울: 동국역경원.

- 김성철 역. 2009.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 대림스님 역. 2009. 『청정도론』 1-3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_\_\_\_\_. 2011. 『앙굿따라 니까야 2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_\_\_\_\_. 2016. 『맛지마 니까야 1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안성두 역. 2013. 『인도불교사상』, 서울: 씨아이알.
- 이종철. 2005. *Abhidharmakośabhāṣya of Vasubandhu, chapter IX : Ātmavādapratishedha, with critical notes by the late Prof. Yasunori Ejima (江島惠教), ed. by Jong Cheol LEE (李鍾徹)*. Bibliotheca Indologica et Buddhologica 11, Tokyo: Sankibo Press.
- \_\_\_\_\_. 역주. 2015. 『구사론 계품·근품·파이품』,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전재성. 역주. 2014. 『마하박가-울장대품』,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정상교. 2016. 「뿌드갈라 존재 양태의 다양성에 관하여—중후기 중관 문헌들을 중심으로」, 『불교학 리뷰』 19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47-76.
- 호진. 2015. 『무아·윤회 문제의 연구』, 서울: 불광출판사.

- Gombrich, Richard. 1988. *Theravada Buddhism: A Social History from Ancient Benares to Modern Colombo*. Routledge and Kegan Paul
- \_\_\_\_\_. 2006. *How Buddhism Began: The Conditioned Genesis of the Early Teachings* (2006, 2<sup>nd</sup> ed.). Oxford Centre for Buddhist Studies.
- Hinüber, O. and K.R. Norman. 1995. *Dhammapada*. London: Pali Text Society.
- Dauids, Rhys. 1915. *Points of controversy; or, Subjects of discourse; being a translation of the Kathā-vatthu from the Abhidhamma-piṭaka, Co-authored with Shwe Zan Aung*. Oxford University Press.
- Pruden, Leo M. 1990. *Abhidharmakośhabhāṣyam, by Louis de La Vallée-Poussin*, Vol. 4.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 Thanissaro Bhikkhu. 2013. “Sabbasava Sutta: All the Fermentations” (MN 2), translated from the Pali. Access to Insight (BCBS Edition).
- Schmithausen, L. 1981. “On some Aspects of Descriptions or Theories of “Liberating Insight” in Early Buddhism,” in: *Studien zum Jainismus und Buddhismus, Gedenkschrift für Ludwig Alsdorf, hrsg. K. Bruhn und A. Wezler*, Wiesbaden 1981, 199-250.
- Wynne, Alexander. 2011. “The Ātman and Its Negation. A Conceptual and Chronologi-

cal Analysis of Early Buddhist Thought.”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ume 33, No. 12 2010 (2011). 10371.

## Understanding on the Pudgalavādins of Vātsīputrīya Based by Analysis of Sutras Referred to in the Chapter Nine “Ātmavādapratishedha” of *Abhidharmakośa*

Chiwon Lee

(Ph.D. student at the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Geumgang University)

Even though the Pudgalavāda has been a famous doctrine through the Buddhist history from the very early time, our knowledge of the Pudgalavādins has been limited because of rather poor remains of their own texts. This paper analysed the sutras referred to in the Chapter nine “Ātmavādapratishedha” of *Abhidharmakośa*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n the Pudgalavādins. A total of 90 sutras was analysed in 34 places of the Chapter nine and in them 30 sutras were analysed in 10 places to be referred by the Pudgalavādins of Vātsīputrīya.

The discordance between 4 nikāyas and 4 āgamas, and the duplications of same or similar sutras in different nikāyas and āgamas have been well known. This analysis of 90 sutras in 34 places also shows such features. The statistical analysis tells all the sutras referred to by the Pudgalavādins are belonged to the group of Chinese translations of Aṅguttara and Aṅguttara nikāya. It suggests, in the debate on *Anātman* within Buddhist circles, the Pudgalavādins of Vātsīputrīya might regard sutras of Aṅguttara as their base of Pudgalavāda, even Vasubandhu criticised them as

*neyārtha* sūtras.

The debate on ‘*Anātman*’ might have begun with strongly rejecting Pudgalavāda, because other Buddhist schools considered the Pudgala of Pudgalavādins as an entity (*dravya*) which seemed to be the ātman of Brahmanism. It is contradiction of the meaning of the Pudgala in the sutras that triggered the initial of the debate. However, as to principal agent of *samsāra*, Pudgalavādins used the term based on the sutras, on the other hand the term of Vasubandhu was based on Abhidharma itself. So it could be a way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n the Pudgalavādins to review the sutras referred by the Pudgalavādins in the Chapter nine “*Ātmavādapratishedha*” of *Abhidharmakośa*.

**Key Words** : “*Ātmavādapratishedha*” of *Abhidharmakośa*, Analysis of sutras, Pudgala, Pudgalavādin of Vātsīputrīya, Debate on *Anātman*.

2019년	9월 18일	투고
2019년	10월 8일	심사완료
2019년	10월 11일	게재확정